

재정적 스트레스 및 재정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미국 대학생을 중심으로 -

Determinants of Financial Distress and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 An analysis of U.S. college students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BK 21 연구원 백은영

School of Economics, Sungkyunkwan Univ.

BK 21 Researcher : Baek, Eunyou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Using a sample size of 643 college students, this study examined the level of financial stress and financial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and investigated the factors related to stresses and problems. A majority of the students had experienced financial stress that interfered their study. Among the financial problems, spending problems were the most problematic.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d that financial knowledge and practice were important determinants of students' financial stress and problems. Some of the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family income, were also important in predicting the students' spending problems. It was suggested that good financial practices of expenditure and maintenance of those practices were important to reduce or prevent financial problems and distress. Financial educators and parents should provide their support in helping students handle their finances responsibly.

주제어(Key Words): 재정적 스트레스(Financial distress), 재정문제(financial problems), 대학생(college students), 재무지식 및 관리행동(financial management and knowledge)

I. 서론

대부분의 미국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대학시절은 재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종속에서 독립으로 전이되는 시기로서 이 시기의 재무지식, 재정관리행동, 그리고 이를 통해 창출되는 가치는 그들의 현재 생활 뿐 아니라 미래 생활, 특히 미래의 재정상태 및 재무관리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미국 대학생들의 경우, 이들은 수입은 적고, 적은 수입으로 학비를 조달하여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그로 인하여 비교적 많은 부채를 지게 되므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그룹에 속한다(Leach, Hayhoe & Turner, 1999). 더구나, Lowell(1995)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지출에 대한 감각은 발달되었으나 저축 및 금전관리등과 관련한 감각은 발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졸업 시점에서 대학생들은 재정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다루는데 자주 문제를 경험하기도 한다. 미국의 대학생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대학생 집단은 특정 소득원도 없이 올바른 소비의식이나 경제적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확률이 높은 집단으로 여겨지고 있으며(서인주·두경자, 2003), 실제로도 20대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대학생들의 재정적 특성 및 상황들은 학생 자신들뿐만 아니라, 교육자 및 재무상담자들의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대학생들이 겪는 재정 스트레스 및 재정문제와 관련하여 Hira와 Anderson(2001)은 많은 대학생들이 재정문제와 관련하여 자주 우려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고 어떤 학생들은 신용 카드 빚을 갚기 위해 학업에 대한 시간을 줄이고 일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거나, 학교를 그만두거나, 혹은 심리적 불안감 및 우울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심지어는 파산신청을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지난 1991년과 1999년 사이에 25세 이하의 연령층에 의한 개인 파산신청은 51%나 증가하였다(Hoover, 2001). 미국 연방 소비자 보고서에서 Manning(1999)은 대학생들의 신용카드 사용에 초점

을 두어 학생들의 재정문제를 연구하였는데, 학생들의 신용카드 사용은 학생들의 재정문제나 채무 상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의 신용 카드 사용 관련 문제들이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 문제들이 과소 평가되어 왔다고 주장하였다.

대학시절의 재정관리 행동 및 재정 문제들은 그들 미래의 경제적 지위와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하다. 이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경험했던 대학생들이 단지 그들의 채무뿐 아니라, 대학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재무지식과 재정관리 행동양식들을 미래에도 답습해 나가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독특한 재정적 상황과 그들의 재무행동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대학생들이 처한 재정상태에 대한 문제들과 그와 관련한 요인들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전의 대학생 관련 연구들은 학생들의 신용카드 사용 및 학생들의 부채부담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으며,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이 어떠한 재정적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재정 스트레스는 어떠한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몇몇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의 재정적 스트레스와 문제들은 그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e.g., Hira & Anderson, 2001; Leach, Hayhoe, & Turner, 1999), 또 다른 연구에서는(e.g. Armstrong & Craven, 1993; Chen & Volpe, 1998; Markovich & DeVaney, 1997) 학생들의 재정관리 행동과 재무지식이 학생들의 재정관련 스트레스와 문제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실태파악이 주를 이루어 왔으며, 학생들의 재정적 스트레스와 문제들에 대한 영향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연구는 지극히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의 부족은 대학생이라는 특정그룹에 초점을 두어 그들의 재정적 스트레스 및 문제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또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재정부담 스트레스 및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가계 및 주부를 대상으로

연구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으며(eg., 계선자·유을용, 2002; 이정우·정진희, 1999; 유을용·계선자, 2003) 대학생에 초점을 둔 연구는 거의 없었다. 또한, 미국의 선행 연구들에서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재정 자원을 관리하는 능력이 재정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은 하고 있지만(이정우·정진희, 1999), 재무관리행태나 지식과 같은 변수들이 재정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재정 스트레스와 문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봄에 있어서 학생들의 재무관리행태 및 지식과 관련된 변수들의 영향력이 어떠한가를 탐색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시도되었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 특유의 재정상태, 스트레스, 재정문제 및 재정관리 행동에 대해 알아보고, 둘째, 학생들의 재정 스트레스 및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교육자 및 상담자, 관련 산업 종사자,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에게 제언을 제공하고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미국 대학생을 토대로 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재정 스트레스 및 문제를 연구하고자 할 때 연구설계를 위한 하나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재정 스트레스

재정 스트레스는 경제적 스트레스 또는 경제적 압박감으로부터 오는 긴장감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다(Voydanoff, 1984). 재정 스트레스는 육체적,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으로, 선행연구에 의하면, 재정적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육체적 고통이나 병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으며(Drentea & Lavrakas, 2000),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eirce, Frone, Russell & Cooper, 1996). 또한 불충분하거나 불만족스런 재정 상태는 여러 관계에서 갈등을 야기시키는 근원으로 알려져 있다(Taylor & Overbey, 1999).

대학생을 대상으로 재정 스트레스를 다룬 연구는 많지 않은데, Phoenix Home Life Student Fiscal Fitness Survey(1998)에 의하면, 학생들의 53 퍼센트가 재정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지적하였다. 대학생들의 재정적 신념, 감정, 행위 등을 연구한 Hira와 Anderson(2001)의 연구에서는 재정적 스트레스를 학생들이 얼마나 자주 재정문제에 대해 고민하는지, 재정문제가 얼마나 자주 개인이나 가족관계에 지장을 주는지, 재정문제가 학업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의 3문항 5점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연구 결과, 재정문제와 관련하여 거의 걱정을 하지 않거나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학생은 전체 학생의 17%에 불과했고, 대다수가 종종 재정적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재정 스트레스의 정도가 더 높았으며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재정 스트레스도 더욱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ach, Hayhoe, 그리고 Turner (1999)는 대학생들의 경제적 안정감과 관련된 모델을 구축하였는데, 재정적 스트레스 수준은 학생들의 경제적 안정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고 다른 인구통계학적 변수들과 경제적 안정감 사이의 매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금전적인 문제와 관련된 변수가 남녀 모두에 대해 재정적 스트레스 수준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Hayhoe, Leach, Turner, Bruin, 그리고 Lawrence 외(2000)의 연구에서는 재정 스트레스를 재정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7가지 질문들을 통해 측정하였다. 7가지 문항은 의류 구입이나 병원비, 자동차 유지비, 관리비나 공공금을 낼 수 있는지 어딘지에 관한 문항 및 재정적인 문제가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재정 문제에 대해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예/아니오'의 이항변수로 측정된 후 재정 스트레스 수준을 나타내 주는 하나의 척도로 합산하여 재정 스트레스를 측정하였다. 이들의 주요 연구 목적은 성별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 및

재정관리 행동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서 대학생들의 재정 스트레스와 관련하여서는 재정관리행동, 신용에 대한 태도, 신용카드 수와 재정적 스트레스 사이에 어떠한 상호작용이 있는지 정도만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재무관리 행동들이 재정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예를 들면 예산을 작성하지 않는 다는지, 저축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학생들이 더 많은 재정 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대학생의 재정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학생들의 재정 스트레스가 당장 학생들 개인의 학업이나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음은 물론,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으로 문제인식은 하고 있으면서도, 재정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단순히 재정 스트레스 수준이 어떠하며 몇몇 특정 변수들과 관련하여, 상관관계 정도만 보여 주는 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언급되고 있는 인구통계학적 특성들과 재정관리행동 관련 변수들로 재정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모델을 구성하여 단순 상관관계가 아닌 보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대학생들의 재정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2. 대학생의 재정관리행동 및 문제

대학생들의 재정관리 행동 및 문제를 연구한 선행 연구들은 대개 그들의 신용 카드 사용 및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와 관련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Armstrong과 Craven (1993)은 대학생들의 신용 카드 사용 및 상환 행태와 관련한 연구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최소한 한 장의 신용 카드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인종 및 성별에 따라 카드 소유 갯수에 큰 차이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신용카드를 소지할 가능성은 더 많았으나, 사용금액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백인의 경우 흑인 학생들에 비해 신용카드를 소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용한 금액 중 일부를 갚지 않고 남겨두는 형식인 리볼빙

(Revolving)의 형태로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카드 대금을 연체했을 때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였을 때 부과되는 이자율이 얼마인지를 잘 모르는 상태였다. Xiao, Noring과 Anderson(1995)은 대학생들의 신용 카드 사용 연구에서 카드 사용에 대한 태도에 초점을 두었으며,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신용 카드 사용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Hayhoe와 그 동료들은(2000) 대학생들의 신용 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성별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으며, 성별이 신용 카드를 통한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임을 발견하였다. 그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학생들이 더 많은 수의 신용 카드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사용금액에 있어서는 남학생들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음을 발견하였다.

Manning(1999)은 대학생들의 신용카드 부채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하면서, 약 70 퍼센트의 학생들이 최소한 한 장의 신용 카드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학생들 중의 3분의 2가 2000불 이상의 카드 부채를 가지고 있었고, 그 중 5분의 1은 10,000불 이상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Allen과 Joyce(1997)는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신용카드 사용과 부채, 그리고 소득원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부채 수준은 1000불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135 퍼센트만이 신용 카드 빚을 만기 이전에 상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Davis와 Lea(1995)는 학생들의 부채 부담에 초점을 두어 그들의 재정문제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비교적 저소득이면서 높은 부채를 지니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남학생이거나 학년이 높을수록 부채를 질 확률이 높았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채에 대해 비교적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였다. Hira와 Anderson(2001)도 여학생들이 더 많은 신용 카드를 소유하고 있었던 반면에 남학생들은 더 많은 부채를 지고 있었으며, 남학생들은 졸업 시점에서 여학생들보다 더 많은 부채를 지니게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더욱 많은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출관련문제도 더욱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재정관리 지식이나 재정관리 행동을 분석한 몇몇 연구들을 살펴보면, Chen과 Volpe(1998), Hira와 Mugenda(2000), 그리고 국내 연구로 김경자와 홍정하(200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Chen과 Volpe는 대학생들의 재무지식 수준에 대한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재무지식 수준이 학생들의 재정관련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보았는데, 재무지식 수준이 높은 학생들(즉정결과 중간값 이상으로 나타난 학생집단)이 낮은 학생들에 비해 자신의 소득보다 지출을 적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가상의 소비 지출 상황을 주었을 때 더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ira와 Mugenda는 성별의 영향에 초점을 두어 학생들의 재정관리 행동을 연구하였는데, 재정관리 행동 중에서도 특히 지출 및 소비행동과 부채행동이 남녀에 따라 차이가 있음에 착안하여 지출 및 소비행동에 초점을 두어 재정관리행동을 분석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불필요한 지출이나 충동구매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 지출 문제로 인하여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자와 홍정하(2002)는 대학생들의 재무지식, 재무태도, 재무행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연구하였는데, 재무지식, 태도, 행동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재무지식과 재무행동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기존의 문헌들은 주로 대학생들의 신용 카드 사용 혹은 부채와 관련하여 빈도 혹은 비율을 이용하여 간략하게 실태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거나, 혹은 성별과 같은 특정한 변수에만 치중하여 신용 카드 사용, 부채 혹은 재정 관리 행동 및 문제점의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재무지식 수준과 재정관리 행동과 관련한 연구들도 두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법은 대학생들의 재정 관련 스트레스나 문제 연구에 있어서, 다른 관련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다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대학생들의 재정 관련 행동 및 문제를 설명하는데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선택적 변수들에 초점

을 둔 재정관리 행동이나 문제에 있어서의 차이 규명이 아닌 보다 포괄적이고도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이용해 관련 변수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III. 연구방법

1. 자료 수집과정 및 표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재무지식, 재정에 대한 인지도 및 행태조사(Survey of College Students' Financial Knowledge, Perception, and Practice) 자료를 사용하였다. 대학생의 재무지식, 인지 및 행태 조사는 대학생에 대한 재무관련 교육이 그들의 재정관련 지식, 재정에 대한 인지도 및 재무행동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질문 개발의 초기 단계에는 미국 소비자 관련학과의 재정설계 전공 교수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43명의 전문가들이 질문들의 적합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대학생의 재무지식, 인지 및 행태 조사는 미국 중부의 한 종합대학에서 실시되었으며, 적정성이 검토된 질문내용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미중부 한 종합대학의 재정설계 전공 교수에 의해 질문지 작성이 이루어졌고 그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 재무설계사들이 세미나를 개최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처음에는 지역사회 의 약 40명의 재무설계사(FP)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학교에서 세미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중 24명의 재무설계사가 연구에 참석할 것을 수락하여, 총 33번의 재무교육 세미나를 38개의 교내 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세미나에 참석한 학생들로 하여금 세미나를 전후해서 학생들에게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질문은 재정관련 지식, 인지도, 행동방식 등을 묻는 총 196개의 문항들로 이루어졌다. 조사는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본 연구를 위한 분석자료로는 총 643명의 학생들을 포함하였다.

2. 변수 측정 방법

대학생들이 겪는 재정적 스트레스와 재정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재정 스트레스 수준과 학생들이 보고한 재정문제 가운데 대표적인 재정문제를 종속변수로서 분석하였다. 대학생의 재정문제나 행동관련 선행연구들은 대학생들의 재정적 스트레스나 문제들이 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지만, 학생들의 재정관련 행동양식 및 지식의 정도와도 관련이 있을 것임을 언급했다. 따라서 대학생의 재정적 스트레스와 재정문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독립변수로는 크게 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들과 학생들의 재무관리행동 및 지식 정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 종속변수의 측정

대학생의 재무지식, 재정에 대한 인지도 및 행태 조사 자료에는 학생들에게 재정 스트레스 수준을 직접적으로 묻는 질문을 포함하고 있었고, 학생들이 어떠한 재정문제들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재정 스트레스는 지난 1년간 재정적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로 얼마나 학업에 방해를 받았는지 횡수로 측정하였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 문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빈번하게 나타나는 7가지 재정 문제와 관련한 항목들을 질문하였으며, 학생들은 각각의 항목에 복수로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각각의 항목들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의 이항 변수로 측정하였다.

2) 독립변수의 측정

독립변수는 크게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재무관리행동 및 지식으로 구성하였으며, 학생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는 성별, 성적, 학생 개인의 소득, 가족 소득, 그리고 학년을 포함하였다. 성별은 남자인 경우 1, 여자인 경우 0으로 측정하였으며, 학생들의 성적과 학생의 수입은 연속변수로서 측정하였다. 가족

의 소득은 상, 중, 하의 세 그룹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재무관리행동 및 관련지식들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열 개의 변수들을 포함하였다.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저축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매달 저축을 한 경우에는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측정하였고, 예산을 세워 수입, 지출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는 만약 학생들이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고 있다면 1, 그렇지 않았다면 0의 이항변수로 측정하였다. 신용 카드의 수는 연속 변수로서 측정하였고, 신용카드 지불결제에 관해서는 항상 완불하는 형태와 사용금액의 최소한만 결제하는 형태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각각에 대하여 이항 변수로 측정하였다. 신용관련 지식은 학생들이 그들의 신용 보고서에 부정적인 정보가 있다면 그것이 그들의 신용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예를 들면 이자율이 높아지는 것 등) 알고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또한 재무 관련 지식에 관해 학습한 적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개인 재무설계와 관련된 과목을 정규과목의 하나로 배웠는지의 여부를 측정하였고, 혹은 스스로 개인재무설계와 관련된 공부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해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부채유무가 측정되었는데, 학자금 대출을 한 경우나 신용카드 빚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부채가 있는 경우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의 이항변수로 측정하였다.

3. 분석 방법

분석방법으로는 빈도 및 비율과 같은 기술적 통계방법 및 다중회귀분석, 로짓분석을 사용하였다. 기술적 통계방법은 연구대상의 특성을 기술하고,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스트레스 및 문제점들, 그리고 그들의 재무관리 행동양식 및 지식, 학습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였으며, 대학생들의 재정적 스트레스와 재정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각 종속변수의 특성에 따라 다중회귀분석 및 로짓분석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총 643명중 약 62 퍼센트는 여학생이었고, 응답자 중 약 40 퍼센트는 4학년, 30 퍼센트는 3학년 학생이었다. 조사에 응한 학생들의 평균 성적은 3.13으로 나타났고 학생들의 월평균 수입은 919달러였으며, 75 퍼센트의 학생들이 중상위층 가족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재무관리 행동 및 지식을 살펴보면, 학생들 중 11 퍼센트가 매월 저축을 하고 있다고 하였고, 16 퍼센트만이 가계부 형태의 예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평균적으로 학생들은 두 장의 신용카드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카드대금 지불 행동을 살펴보면, 반 이상(54%)의 학생들이 기한 내에 완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고, 24%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지불해야 할 금액 중 최소 금액만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 중 28%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상태이며, 26%는 신용카드 빚을 지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 가운데 60% 이상 (63%)은 그들의 신용보고서의 부정적인 정보가 신용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4분의 1(25%)정도가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시절에 개인 재정설계 혹은 재무관리와 관련한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었으며, 27%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은 그들 스스로 개인 재무관리에 관해 공부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2. 대학생들의 재정적 스트레스 및 재정 문제

학생들이 겪고 있는 재정적 스트레스 수준을 살펴보면, 학생들은 평균 3회 정도 재정적인 문제들로 인해 학업에 지장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심한 경우에는 스트레스로 인해 학업에 방해를 받은 횟수가 50회에 달한다고 응답한 학생도 있었다. 학생들이 겪고 있는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34%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충동구매를 포함, 소비지출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하여,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재

정적인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는 학생들은 예산계획의 부족으로 인하여, 학비와 다른 지출과의 조절문제, 용돈 혹은 수입과 지출, 저축간의 분배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22%의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재정문제의 하나로 꼽았다. 다음으로는 신용카드 사용문제를 꼽았는데, 18%의 학생들은 책임있는 신용카드의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응답한 4가지 재정적인 문제들 외에도 학생들은 신용불량 문제(7%), 재정적인 도움에 대한 무지(4%), 인상되는 학비 및 제반비용(2%) 등이 재정적인 문제라고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변수	%/평균(SD)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남	38.40%
여	61.60%
성적	3.13(0.29)
소득	918.94(197.75)
가족생활수준	
상	30.17%
중	44.83%
하	25.00%
학년	
1학년	11.07%
2학년	19.85%
3학년	29.77%
4학년	39.31%
재무관련지식 및 재무관리행동	
규칙적 저축	11.21%
예산짜기	16.25%
신용카드수	2.06(1.16)
신용카드 상환습관	
모두 상환	54.46%
최소 금액만 상환	23.66%
정규 재무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25.00%
스스로 재무지식을 학습했는지 여부	26.50%
신용에 대한 지식	63.14%
학자금 대출	28.19%
신용카드 부채	26.48%

응답하였다.

3. 대학생의 재정적 스트레스와 재정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재정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생들의 재정적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이 수행되었다. 크게 학생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들과 재무관리행동양식 및 지식요인이 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는데, 전체적으로 설명변수들은 대학생의 재정적 스트레스 수준을 11% 정도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사실은 학생들의 재정적 스트레스는 주로 학생들의 재무관리 행동양식 및 지식과 관련이 있었고,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에서는 성적만이 학생들의 재정적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일수록 재정적 스트레스는 더 적게 나타났다.

재무관리 행동양식 및 지식요인들 가운데서는 저축, 예산관리, 신용카드 사용 등이 고루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월 저축을 하는 학생일수록 재정적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산을 수립해서 개인재무관리를 하고 있는 학생일수록 재정적 스트레스는 덜 한 것으로 나타나, 재무관리행동을 수행하는 사람이 재정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Hayhoe와 그 동료들(200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신용카드를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는 학생들의 재정적 스트레스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신용카드를 어떤 형식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학생들의 재정적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용카드를 편리성에 초점을 두고 사용하여, 카드 대금을 일시불로 다 지불하는 학생들일수록 재정적 스트레스를 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최소한의 금액만 지불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더 많은 재정적 스트레스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Hayhoe et. al, 2000)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재

정적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학생들의 경우 그들의 신용 카드 대금 지불과 관련, 최소 금액만 지불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개인 재무관리에 대해 정규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학습을 한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는 실질적으로 재정 스트레스 수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 가운데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과 신용카드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학생일수록 재정적 스트레스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재정문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

<표 2>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학생들이 겪는 여러 재정적인 문제들 중, 소비지출 문제는 1/3 이상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재정문제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소비지출 문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초점을 두어 대학생들의 재정문제를 분석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경험하는 재정문제가 자원의 부족에서 오는 문제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재무관리방법상의 문제로 크게 정의해 볼 때(Varcoe, 1990; 김순미, 1993에서 재인용), 소비지출 문제는 두 문제의 결합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경우가 많은 문제로서 대표적인 재정문제의 하나로 분석해 보는데 적절한 변수로 사료된다. 로짓분석 결과, 학생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 재무관리 행동양식 및 지식 관련 변인들이 고루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특성들 가운데서는 성별, 가

<표 2> 대학생들의 재정적 스트레스 및 재정 문제

재정 스트레스	평균 (SD)
스트레스 수준	3.38 (5.76)
재정적 문제 및 이슈	%
소비지출 문제 (충동구매 포함)	34%
예산계획의 부족	27%
학자금 대출	22%
신용카드 사용	18%
기타	13%

주: 재정적 문제 및 이슈 항목에 대해서는 각 항목에 대해 복수응답 하였으므로 총계는 100%가 아님.

〈표 3〉 대학생의 재정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

변수	Estimates	SE	
학생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여)			
남	-0.276	0.726	
성적	-1.871	0.810	*
소득	0.003	0.000	
가족생활수준 (중)			
상	-1.283	0.809	
하	0.235	0.914	
학년 (1학년)			
2학년	0.542	1.071	
3학년	0.173	0.921	
4학년	1.208	0.917	
재무관련지식 및 재무관리행동			
규칙적 저축	-2.050	0.790	**
예산짜기	-3.786	0.996	***
신용카드수	0.347	0.202	
신용카드 상환습관			
모두 상환	-2.121	0.741	**
최소 금액만 상환	3.176	1.008	**
정규 재무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0.627	0.914	
스스로 재무지식을 학습했는지 여부	0.231	0.928	
신용에 대한 지식	-0.448	0.693	
학자금 대출	1.764	0.798	*
신용카드 부채	2.385	0.812	**
상수	7.972	2.644	
F-Value		4.40***	
R-square		0.11	

주: * $p < .05$ ** $p < .01$ *** $p < .001$

족의 소득 수준, 학년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들이 여학생들 보다 소비지출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에 비해 문제를 가질 확률은 3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몇몇 선행연구에서 여학생이 신용카드를 가질 확률은 높았으나 남학생들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더 높았거나, 부채를 가질 확률이 더 높았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Davis & Lea, 1995; Hira & Anderson, 2001). 가족의 소득 수준은 학생들의

소비, 지출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가정 및 저소득 가정 모두가 학생들의 소비지출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가정 및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은 중간수준 정도의 소득을 가진 가정의 학생들보다 소비 지출 문제를 보고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소득 가정의 학생들은 중간소득 가정의 학생들에 비해서 소비 지출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거의 여덟배나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고소득 가정의 학생들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라이프 스타일을

〈표 4〉 소비지출 문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

변수	Estimates	SE	Odds Ratio
학생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여)			
남	1.097**	0.367	2.976
성적	-0.430	0.401	0.650
소득	-0.000	0.000	1.000
가족생활수준 (중)			
상	2.007***	0.471	7.980
하	0.889*	0.452	2.432
학년 (1학년)			
2학년	1.925***	0.530	6.854
3학년	1.690***	0.437	5.418
4학년	2.219***	0.445	9.198
재무관련지식 및 재무관리행동			
규칙적 저축	0.380	0.411	1.463
예산짜기	-0.691	0.455	0.501
신용카드수	0.124	0.095	1.284
신용카드 상환습관			
모두 상환	-0.145	0.364	0.865
최소 금액만 상환	1.629**	0.624	5.097
정규 재무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0.216	0.453	0.806
스스로 재무지식을 학습했는지 여부	-0.023	0.465	0.977
신용에 대한 지식	0.851	0.333	2.341
학자금 대출	0.693	0.381	1.999
신용카드 부채	1.019**	0.383	2.769
상수	-1.322	1.327	
-2 log likelihood		350,786	
Chi-square		460,891***	

주: * $p < .05$ ** $p < .01$ *** $p < .001$

독립한 후에도 유지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혹은 고소득 가정의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사주었던 부유한 부모들로 인하여 올바르지 못한 소비습관을 발달시켰을 가능성을 한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학생들의 학년도 소비지출 문제와 관련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 3, 4학년 학생들이 신입생들에 비해 소비지출과 관련된 문제를 더 많이 가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지출과 관련하여 더

많은 문제를 가지게 된다는 Hira와 Anderson(2001)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재무관리 행동양식 및 지식과 관련된 요인들 중에서는 신용카드 대금 지불행태, 소비자 신용과 관련된 지식, 그리고 신용 카드 부채가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매달 최소한의 금액만을 지불하는 학생들은 그 이상을 지불하는 학생들에 비해 소비 지출 관련 문제들을 5배나 더 많이 가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신용카드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학생일수록 신용카드 부

체가 없는 학생들에 비해 소비 지출문제를 가지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신용보고서의 부정적인 정보가 소비자 신용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일수록 그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학생들에 비해 소비 지출관련 문제들을 가지는 경향이 더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소비지출과 관련한 문제가 별로 없는 학생들 보다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오히려 신용정보와 관련하여 더 민감하기 때문이 아닌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 스트레스 및 문제는 어떠한가, 어떠한 요인들이 재정 스트레스 수준과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함이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생 643명의 재정 스트레스 수준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문제를 분석하였다. 또한 대학생들의 재정 스트레스 및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재무관리 행동양식 및 지식관련 요인들을 모델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학생들은 평균 1년에 3회 정도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학업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재정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간의 편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당면한 재정적 문제 및 이슈들로는 소비지출문제, 예산 계획의 부족, 학자금 대출 및 올바른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한 것들이 주요한 문제로 나타났다. 규칙적으로 저축을 하거나 예산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재무관리 행동은 1/5 미만의 학생들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1/4 정도의 학생들만이 학교에서 재무교육을 받았거나, 스스로 재무지식에 대해 학습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재무교육 수준이나 관리행동 모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28%나

되었으며 신용카드 부채를 가지고 있는 학생도 26%에 해당하였다. 재정문제를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는 불충분한 소득으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재정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지식과 관리능력이 부족한데서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Fizsimmons & Williams, 1973; 이정우·정진희, 1999에서 재인용). 따라서 대학생의 재정적 스트레스와 재정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에 현재 주로 전공형식으로만 개설되어 있는 가계재정설계 과목을 교양과목으로 확대하여 많은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재정문제에 관심을 갖고, 학생들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키워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문제 중 가장 큰 것은 소비 지출 문제 그리고 다음으로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은 예산 계획의 부족이었다. 따라서 이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많이 다루었던 학생들의 부채나 신용카드 문제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합리적인 소비 지출 및 예산 계획과 같은 기본적인 재무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재무교육과 관련된 커리큘럼을 구성할 때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들의 재정 스트레스 및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학생들의 재무관리 행동양식 및 지식과 관련된 요인들이 학생들의 재정 스트레스 및 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것을 재확인해 주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은 재정 스트레스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생들의 재정문제 특히, 소비 지출 문제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은 소비지출문제를 가질 확률이 높아졌으며,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소비지출 문제는 더욱 다양해지나(Hira & Anderson, 2001) 그에 맞추어 학생들이 관리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가족 소득과 관련한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중간소득층 가정의 학생

들에 비해 소비지출 문제가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은 지출대비 절대 소득의 부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나, 고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중간소득층 가정의 학생들보다 소비지출 문제를 더 많이 가질 확률이 있다는 것은 가정 내에서의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즉,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좋은 지출 습관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선행 연구들은 학생 자신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나 재무 관리행동 등이 재정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나 가족배경변인들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후속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소비 지출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가정교육이나 가족 상황의 영향력을 세밀하게 파악해 볼 수 있도록 더욱 구체적인 가족배경변인들을 포함하여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는 학생들의 소비지출 문제가 학생들의 태도, 감정 또는 학생들의 가족이나 친구들, 주위의 상황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결과일 수도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준거집단의 영향이나 충동적 성향 등의 태도나 감정과 관련된 변수들을 포함시켜 함께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신용카드와 관련한 변수들의 결과도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학생들의 신용카드 부채유무와 신용카드 대금 상황습관 변수들은 학생들의 재정적 스트레스 수준 및 재정문제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들에 언급된 바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 관련문제가 학생들의 재정 문제나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신용카드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사용방법, 신용카드 사용의 장단점 및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등을 학생들이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하면, 편리한 지불수단이지만 동시에 잘못된 사용은 높은 이자율로 인하여 급속하게 커질 수 있는 채무를 남길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한 소비자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와 동시에 문제

가 있는 소비자들에 대한 소비자 상담 및 재교육 프로그램도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생들은 그들 자체로서 큰 구매력이 있는 대상이며 동시에 높은 교육수준과 잠재적으로 미래에 고소득을 가질 확률이 높은 집단으로서 좋은 마케팅의 대상이 되어왔다(Punch, 1991). 신용카드 업계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신용카드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활발한 마케팅 활동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한 연구에(Staten & Barron, 2002) 따르면 대학생들은 대학생 이상의 성인들에 비해 사용금액이 적으며 연체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용카드 업계에서는 특정 소득원도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카드를 발급할 때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와 관련하여 정책입안자들은 학생들에 대해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신용카드 회사들에 대해 철저한 규제를 가하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발급 규제 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의 재정 스트레스 및 문제에 관하여 기존 선행연구들이 많이 실시해 왔던 실태파악이 아닌 영향요인의 검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재무관리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하나의 비교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후속 연구를 위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몇 가지 제한점을 토대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후속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재정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수를 보다 세부적이고 정확하게 측정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항들로 구성된 척도를 구성하여 척도를 통한 변수의 측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재정 스트레스 척도를 구성할 때는 가계나 주부를 대상으로 한 경우와는 달리 대학생 특유의 재정 상태 및 상황을 고려하여 척도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미국의 특정 지역에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전체 대학생들에게로 일반화할 때에는 주의가 요망된다.

둘째, 비록 우리나라가 서구 문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세계화의 흐름과 함께 점차 서구화 되어가는 것은 사실이나 한국과 미국 대학생 사이의 문화적, 상황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대학생들의 경우 우리나라 대학생들에 비해 재정적으로 독립하여 스스로의 재정문제를 운영해 나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면한 문제들이 더 복잡할 수도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재정 스트레스 및 문제를 연구하여 다른 나라 학생들과의 차이를 비교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재정 스트레스나 문제들에 관해 연구한 바가 거의 없음을 고려할 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사회인이 되어서까지 이어나가기 전에 문제가 되는 바와 영향요인들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재무지식, 인지도 및 행태조사를 토대로 대학생들의 재정 스트레스 및 문제점들과 관련된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시도된 탐색적 성격의 연구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가족배경관련 변수들뿐만 아니라 태도 및 심리적인 변수 등 자료의 한계상 분석하기 힘들었던 요인들을 포함하여 분석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계선자, 유을용(2002). 도시 전업주부의 재정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5), 13-26.
- 김경자, 홍정하(2002). 대학생들의 재무지식과 개인 재무관리 행태 연구. *한국 가정관리학회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117-122.
- 김순미(1993). 가계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재무서비스 체계의 이론적 검토. *대한가정학회지*, 31(3), 89-97.
- 서인주, 두경자(2003).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소비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41(12), 117-132.
- 유을용, 계선자(2003). 도시주부의 재정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경제복지감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155-173.
- 이정우, 정진희(1999). 도시주부가 인지한 가계의 재정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3(1), 51-65.
- Allen, J. L. & Joyce, M. A. (1997). Credit card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Ethnic differences. *Consumer Interests Annual*, 43, 162-170.
- Armstrong, C. J. & Craven, M. J. (1993). Credit card use and payment practices among a sample of college students. *Proceedings of 6th Annual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for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Education*, 148-159.
- Chen, H. & Volpe, R. P. (1998). An analysis of personal financial literacy among college students. *Financial Services Review*, 7(2), 107-128.
- Davis, E. & Lea, S. E. G. (1995). Students attitudes to students debt.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6, 663-679.
- Drentea, P., & Lavrakas, P. J. (2000). Over the limit: The association among health status, race and debt. *Social Science & Medicine*, 50, 517-529.
- Hayhoe, C. R., Leach, L. J., Turner, P. R., Bruin, M. J., & Lawrence, F. C. (2000). Differences in spending habits and credit use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4(1), 113-133.
- Hira, T. K. & Anderson, M. M. (2001). Financial beliefs, feelings, and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by gender and grade level. *Proceedings of Eastern Family Economics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40-53.
- Hira, T. K., & Mugenda, O. (2000). Gender differences in financial perceptions, behaviors, and satisfaction. *Journal of Financial Planning*, 13(2), 86-92.
- Hoover, E. (2001, June 15). The lure of easy credit

- leaves more students struggling with debt.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pp. A35-A36.
- Leach, L. J., Hayhoe, C. R., & Turner, P. R. (1999). Factors affecting perceived economic well-being of college students: A gender perspective.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0(2), 11- 21.
- Lowell, J. (1995). *How to survive in the real world: Financial independence for the recent graduate*. New York: Penguin Books.
- Manning, R. D. (1999). *Credit cards on campus: Costs and consequences of student debt*. 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 Washington, D.C.
- Markovich, C. A. & DeVaney, S. A. (1997). College seniors person finance knowledge and practices.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89(3), 61-65.
- Peirce, R. S., Frone, M. R., Russell, M., & Cooper, M. L. (1996). Financial stress, social support and alcohol involvement: A longitudinal test of the buffering hypothesis in a general population survey. *Health Psychology*, 15, 38-47.
- Punch, L. (1991). Better marks for college students. *Credit Card Management*, 4, 64-67.
- Staten, M. & Barron, J. (2002). College Student Credit Card Usage. *Credit Research Center, Working Paper #65*. Georgetown University.
- Taylor, D. S., & Overbey, G. (1999). Financial practices and expectations of student and non-student consumers. *Journal of Family & Consumer Sciences*. Retrieved March 25, 2002 from <http://ptg.djnr.com/ccroot/asp/publib/story.asp>
- Voydanoff, P. (1984). Economic distress and families. *Journal of Family Issues*, 5(2), 273-288.
- Xiao, J. J., Noring, F. E. & Anderson, J. G. (1995).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s credit card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9, 155-174.

(2004년 2월 16일 접수, 2004년 5월 12일 채택)